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CRY TO DREAM AGAIN

가제 : 다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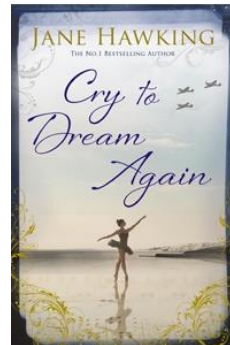
저자 : Jane Hawking

출판사: Alma Books

발행일: 2018년 6월 28일

분량 : 480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



★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의 아내,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의 원작 베스트셀러 작가 제인 호킹의 신작

첫눈에 온 마음을 빼앗길 만큼 사랑에 빠질 수는 있지만, 그 찰나의 감정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심장이 내려앉을 것 같은 강렬한 떨림은 그 사람을 아주 오랫동안, 수년 동안 못 보더라도 남아 있을까? 스티븐 호킹의 아내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제인 호킹은 ‘불멸의 영혼 (Immortal Soul)’ 시리즈 두 번째 이야기로 완성한 이 소설에서 이 불가능할 것 같은 사랑이 누군가에게 평생 유일한 사랑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으로 몸과 마음에 남은 깊은 상처와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의 삶과 그 속에서 사랑을 기다리며 희미한 희망을 붙잡으려 애쓰는 젊은 연인의 절실한 감정을 세밀하게 그린 소설이다.

영국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의 장녀로 태어난 셸리는 여름 방학이 되면 남동생과 함께 엄마의 고향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1차 대전에 영국이 탱크를 처음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 엔지니어로 참여하여 나중에는 직접 탱크를 몰고 적진 한가운대를 돌파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프랑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중, 명석한 머리와 유창한 언어 실력을 인정 받아 연합군 본부에서 일하던 엄마를 만나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셸리의 아버지는 누구보다 밝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온 부대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프랑스에서 신혼 살림을 시작한 직후, 다시 전투에 배치된 아버지는 탱크가 박살이 날 정도로 거센 공격을 당해 목숨만 간신히 건졌다. 허리 아래를 다쳐 평생 다리를 절어야만 하는 신세가 되고, 바로 옆에서 죽어가던 전우들과 지옥처럼 느껴지던 그 날의 폭격 현장이 머릿속에서 사라지 않아 거의 매일 악몽에 시달렸다. 그렇게 쾌활했던 청년은 점점 빛을 잃어갔다. 엄마와 함께 영국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셸리와 남동생 에드워드를 낳아 단란한 가정을

꾸린 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전쟁의 기억을 털어내지 못했다. 일년에 한 번만이라도 프랑스에 가고 싶다는 엄마의 간곡한 요청을 매정하게 거부하자, 십 년 넘게 참고 살던 엄마는 셸리와 남동생이 크자 둘만 데리고 여름은 프랑스에서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 1937년, 열일곱 살 셸리는 그 해 여름도 프랑스 북부에 있는 자그마한 엄마의 고향집에서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홀로 집에서 쓸쓸히 기다릴 아버지를 생각하며 도버 행 페리에 올랐다. 험악해진 날씨에 울렁대는 선실에 만 앉아 있기가 답답해서 갑판에 나와 바람을 쐬던 셸리는 수많은 승객들 사이에서 그만 엄마와 동생을 잃어버리고, 다급한 마음에 곁에 있던 키 큰 신사에게 엄마를 좀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환하게 웃는 얼굴로 셸리가 설명하는 인상착의에 귀를 기울이고 엄마가 있는 곳까지 에스코트해 준 사람, 앨런과의 만남은 그렇게 아무런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셸리는 모두 합쳐봐야 단 몇 분에 지나지 않았던 앨런과의 만남에 온 몸이 떨렸다. 잠깐이지만 자신의 두 눈을 지그시 바라보던 앨런의 서글서글한 얼굴,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던 엄마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단정한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다.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고 새들러웰스 발레단의 핵심 단원이 되는 것만 생각하던 셸리는 불쑥 떠오르는 앨런 생각에 발레 연습을 하다가도 몇 번씩 혼자 깜짝 놀라기 일쑤였다. 하지만 앨런에 대한 어떤 단서도 없는 이상 그를 다시 찾으려면 아주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한 셸리는 온 세상이 다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 앨런이 자신을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굳힌다. 하지만 유럽 전체에 또 다시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 발레도, 앨런을 다시 찾고 말겠다는 꿈은 혼란 속에 모두 흩어지고 만다.

1940년, 2차 대전이 평범했던 삶을 집어 삼킨 영국에서 셸리는 대극장 매점의 조수로 하루 하루를 연명한다. 한 때 모든 선생님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을 정도로 유망한 발레리나였던 셸리는 마비 증상으로 코 앞까지 이론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하지만 절망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생각으로 전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다시 일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처럼 공연 전과 중간 휴식시간에 샌드위치와 음료를 팔던 어느 날, 낮익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3년 전, 페리에서 잠깐 만난 뒤 내내 셸리의 마음 한 쪽을 차지하고 있던 앨런이 기적처럼 눈 앞에 나타난 것이다. 셸리는 앨런 역시 그 짧은 만남을 잊지 못하고 백방으로 셸리를 찾아 헤맸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놀란다. 잠깐 스쳐간 사람이 평생의 사랑임을 동시에 느낀 두 사람의 뜨거운 재회는 며칠간 꿈처럼 이어지지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셸리에게 전해진다. 셸리와 다시 만나기 직전, 앨런이 공군에 자원 입대했다는 소식이었다. 다시 이별해야만 하는 두 사람은 꼭 다시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하지만, 누구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사랑, 상실, 고통의 감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세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린 인상적인 소설이다.

<저자 소개>

제인 호킹(Jane Hawking)은 스티븐 호킹의 아내로 작가, 강연자로 활동해 왔다. 저서로는 『At Home in France』와 오스카상 수상작인 영화 <사랑에 대한 모든 것(The Theory of Everything)>의 원작 『Travelling to Infinity』 등이 있다.

제목 : THE FLIGHT PORTFOLIO

가제 : 비행 계획

저자 : Julie Orringer

출판사: Knopf

발행일: 2019년 5월 7일

분량 : 448 페이지

장르 : 역사소설



★ “매 순간 스토리텔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가득 느낄 수 있는 소설을 쓰는 작가” - 『Less』의 작가 앤드류 셉 그리어

★ “너무나도 현실적인 소설 속 세계, 그 깊숙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간다. 읽고 난 뒤에도 오랫동안 그 세계는 우리 자신의 세계가 된다.” - 「뉴욕타임스 북리뷰」

바리안 프라이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2차 대전의 비극 속에서도 위험에 처한 예술가들을 직접 구하러 나선 저널리스트다. 미국에서 프랑스로 건너가 나치가 점령한 유럽에서 나치에 반대하거나 그들의 반감을 살 만한 작품 활동으로 체포되고 처형될 위기에 놓인 예술가들을 비롯해 유대인을 2천 명 넘게 탈출시킨 실존 인물 바리안 프라이의 삶을 바탕으로 한 이 소설은 위대한 작품과 예술이 정치적인 이유로 무참히 파괴되는 참상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의 대담한 시도와 그 과정에서 겪은 수많은 우여곡절을 다큐멘터리처럼 추적한다.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국제정세를 보도하는 한 언론사의 간부로 그럭저럭 잘 살던 바리안 프라이는 1935년, 취재차 방문한 베를린에서 평생 잊지 못할 처참한 광경을 두 눈으로 목격한다. 나치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방식은 잔인하다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겨 주었다. 사람을 길거리로 무작정 끌어내고 노인도, 여성도, 아이도 가리지 않는 무자비한 그들의 행태를 본 이상, 모른 척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뜻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구조 계획을 세운다. 선들러가 리스트를 만들어 유대인들을 구출한 것처럼 나치 비밀경찰인 게슈타포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어 곧 추방되거나 붙들릴 위험에 놓인 예술가들을 선정하고 직접 가서 탈출을 돕는다는 것이 바리안과 동료들의 계획이었다. 프랑스 주재 미국 영사관의 도움을 받아 이들이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도록 서류를 몇 가지 조작하고 기차에 태워 피레네 산맥을 넘어, 스페인을 거쳐 리스본에 마련된 은신처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들의 계획이 완성된 시점까지만 해도, 바리안은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으리란 희망에 부풀었다. 여기저기서 모금한 지원금이 3천 달러 정도로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프랑스에 체류하는 기간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점과 위조 서류가 탄로날 경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점 등 출발 전에 예상했던 일들은 바리안이 마르세유에 도착한 직후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대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연이어 터져 그를 당혹스럽게 만든다. 가장 큰 문제는, 도와주겠다는 바리안의 제안을 예술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었다. 나치가 유럽을 점유하고 잔혹한 일들을 저지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차마 나를 건드릴까’하는 근거 없는 믿음 하나로 오랫동안 정든 집과 한창 작업 중인 일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는 순진한 예술가들의 고집에 바리안은 허를 내두른다. 그가 베를린에서 본 상황과 나치의 만행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길어야 한 달 정도를 예정했던 바리안의 체류기간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기 시작한다.

1940년 8월, 무더운 여름에 마르세유에 도착한 바리안은 철학사상가 한나 아렌트, 소설가 프란츠 베르펠, 시인 앙드레 브르통, 화가 막스 에른스트, 화가 마르셀 뒤샹 등 유대인이거나 나치 정권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고 풍자해온 수백 명의 예술가들을 네 명의 동료들과 나눠서 직접 찾아가 탈출을 권하기로 했다. 하지만 바리안의 미션은 초반부터 그런 권유 자체를 어이없어하는 반응과 부딪히며 난항을 겪는다. 마르세유 시내에서 한참 떨어진 작은 마을, 한 때 여학교 건물 이던 곳에 아내와 조용히 살고 있던 샤갈도 그의 의지를 꺾은 인물 중 하나였다. 전쟁으로 식료품 구하기가 힘들다는 푸념 정도만 할 뿐, 나치가 처리해야 할 화가로 자신을 지목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바리안의 제안을 딱 잘라 거절했다. 샤갈의 아내 역시 남편의 명성 때문에라도 쉽사리 건드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나름 평온한 삶을 깨고 싶지 않는 뜻을 분명히 했다. 왕복 네 시간이 넘게 걸려 거장을 만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에, 바리안은 오직 정의감 하나로 이 위험한 일에 뛰어든 자신을 출발 직전까지 만류하던 아내 얼굴이 떠올랐다. 계획이 술술 풀릴 거라곤 생각지 않았지만 위험에 빠진 당사자가 도움을 거절할 거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고, 그토록 위대한 작품과 남들과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은 전혀 보지 못한다는 사실도 믿기 힘들었다. 프랑스에 온지 며칠 만에 의욕이 바닥난 바리안은 샤갈과의 만남 이후 급기야 다 포기하고 미국에 돌아가리라 결심하는데, 누군가 호텔 프런트에 말기고 갔다는 전갈 하나가 또 다시 그의 결심을 뒤흔든다. 대학 졸업 후 12년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던 동창, 그랜트가 마르세유에 나타난 것이다. 뜬금없는 고비만큼 갑작스러운 행운과 응원에 힘입어 바리안은 다시 용기를 낸다.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영웅적인 인물의 끈질긴 노력을 흡입력 있게 그린 특별한 역사소설이다.

<저자 소개>

줄리 오린저(Julie Orringer)는 「뉴욕타임스」 ‘주목할 만한 책’으로 선정된 단편 모음집 『How to Breathe Underwater』와 2010년 내셔널 유대인 도서상 소설 부문 결승에 오른 소설 『보이지 않는 다리』를 쓴 작가다. 「파리 리뷰(The Paris Review)」 디스커버리 상, 스탠포드 대학교 예술 부문 장학금을 받았으며 뉴욕 공공도서관 장학생으로도 선정됐다.

제목 : THE BEST OF CRIMES

가제 : 최고의 범죄

저자 : K. C. Maher

출판사: RedDoor

발행일: 2019년 5월

분량 : 305 페이지

장르 : 영미소설일반/로맨스

*** 유능하고 반듯한 34세 남성과 열세 살 소녀, 두 사람의 특별한 관계 - 메릴린 로빈슨의 『Lila』, 셀레스테 응의 『Little Fires Everywhere』 팬들이 흥미를 느낄 만한 독특한 이야기**

열네 살에 대학에 입학해서 학위를 세 개나 따내고, 법적으로 성인이 되기도 전에 미국 최대 금융회사에 어마어마한 초봉을 받고 일자리를 확보한 수재, 월터 미첼이 마을 경찰서로 향한다. 침착하게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간 그는 오랜 이웃이기도 한 경찰서장에게 자신은 납치범이니 원칙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다. 서장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만 해당사항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월터는 버티고 앉아 고집을 꺾지 않는다. 그가 납치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는 자신의 딸, 올리비아의 친구 아만다 조넷이다. 그의 굳건한 태도에 질린 서장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고, 월터는 조용히 경찰서 책상에 앉아 준비해 온 노트에 자신의 ‘죄’를 기록하기 시작한다. 왜 이런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납치범이 제 발로 찾아와 자백해도 경찰이 인정하지 않는, 이 기막힌 실랑이의 진실은 무엇일까? 소설은 끝까지 자신이 유죄라 주장한 월터가 스스로 인정한 죄로 5년 형을 선고 받은 때로부터 16년의 세월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그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월터가 일인칭으로 직접 들려주는 그간의 삶에 귀를 기울이면, 결론만 봤을 때 ‘웬 정신 나간 놈이 저지른 이상한 짓’으로 보이는 사건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랜 시간에 걸쳐 흘러간 특별한 러브스토리가 될 수 있음을 납득하고 공감하게 된다.

월터는 에이즈 백신을 개발하고 그 백신이 가장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일에 인생을 바친 부모님 밑에서 나고 자랐다. 가난한 자원봉사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인도주의적인 사업에 폭 빠진 부모님은 남들이 보기엔 아주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지만 월터에게는 어린 시절 가장 부모님이 필요하고, 간절했던 순간에 단 한 번도 곁에 있어주지 않은, 남처럼 멀고 원망만 떠올리게 되는 그런 존재였다. 물질적으로는 조금도 아쉬울 것 없이 뒷바라지를 해준 덕분에 월터는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가장 뛰어난 선생님들로부터 최상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다. 나중에 성인이 된 후, 그는 자신이 영재가 될 수 있었던 건 명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집중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 확신했다. 스무 살도 되기 전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학적인 계산 능력과 혈기왕성한 심대 특유의 과감한 시도로 리만 브라더스의 투자 포트폴리오 수립 방식을 확 바꿔놓고 회장의 신임을 톡톡히 얻은 그는 회장 비서로 일하던 스티어링과 가정을 꾸린다. 나이가 열 살 이상 더 많았던 스티

링은 너무 어리고 유능한 그를 부담스러워했지만, 월터는 대학 시절부터 이미 또래보다는 멘토나 교수로 만난 30대 여성들에게 더 끌렸다. 스티어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딸 올리비아가 태어나면서 월터가 느끼는 행복감은 수백 배로 증폭된다. 월터는 올리비아에게 태어나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벅찬 기쁨, 목숨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것 같은 사랑을 느끼고, 여느 아빠들보다 한층 더 자상하게 아이 키우는 일에도 큰 관심을 기울인다. 올리비아가 서너 살이 된 무렵,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제이드가 새 베이비시터로 채용되고 그녀의 딸 아만다는 자연스럽게 올리비아와 단짝이 된다. 월터는 천사처럼 예쁜 두 꼬마를 어디든 데리고 다니며 놀아주고, 외식도 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아간다. 하지만 두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평온한 시절에 균열이 일기 시작한다.

올리비아는 가난하고 공부도 잘 못하는 아만다보다 화려하고 눈에 띄는 친구들을 더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고, 아만다는 그리 정상적이라 할 수 없는 가정사까지 겹치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낸다. 그런데 의지할 곳이 없어서였을까, 스티어링은 아만다가 월터를 ‘우상처럼 대한다’는 사실을 알아챈다. 롤모델이 될 만한 어른이 주변에 없어서 그런 것이라 가볍게 생각했지만 월터 역시 어린애 같기만 하던 모습에서 훌쩍 자라 여성의 문턱에 들어선 아만다를 자꾸만 주시하게 된다. 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은 불순한 의도나 성적인 충동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는 아만다의 맑은 눈빛처럼 순수한 설렘이라 월터 자신도 당혹스러웠다. 급기야 아만다는 월터의 시선을 눈치채고, 말하지 않아도 텔레파시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챙겨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전해지고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 처음에는 무조건 억누르려고만 했던 마음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월터는 주춤하던 자신과 달리 당당하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아만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하지만 선을 넘는 행동이나 해서는 안 될 행동은 절대 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이미 많은 상처를 입은 아만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한다. 아만다가 현재의 생활에 중지부를 찍기 위해 멀리 떠나야만 하는 날이 다가오자, 월터는 아만다를 데리고 디즈니월드로 향한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훌쩍 떠난 그 31시간의 여행, 동화 속 나라에서 정말 동화처럼 흘러간 짧은 시간을 끝으로 두 사람은 이별한다. 월터는 강제로 데려간 것은 아니지만 부모가 아닌 자신이 미성년자를 사전 승인도 없이 데리고 있었으니 법적으로는 납치에 해당한다며 제발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야기는 월터가 꼬마 때부터 딸처럼 키운 소녀에게 왜 각별한 감정을 느끼게 됐는지, 그가 성인이 되어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불안한 경제계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면서 깨닫고 느끼는 것들과 함께 들려준다. 유혹에 휩쓸리거나 굴복하기보다 누구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소중한 관계를 만들고, 거기서 살아갈 힘을 얻는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저자 소개>

K.C. 메이허(K.C. Maher)는 『Diary of a Heretic』, 『Underground Nest』 등을 쓴 소설가다. 「Ascent」, 「Black Warrior Review」 등 여러 문학 잡지에 단편을 기고해 왔다. 드류 하인즈 문학상(Drue Heinz Literature Prize) 등에 후보로 선정됐다.

제목 : RED WAR

가제 : 붉은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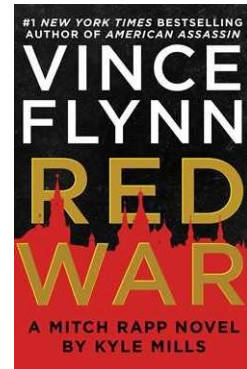
저자 : Kyle Mills

출판사: Flynn, Vince

발행일: 2018년 9월 25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스릴러소설



★ “비밀첩보원이 등장하는 스릴러물 가운데 미치 램 시리즈는 단연 최고다” - 「북리스트」

★ “돔보이는 소설... 카일 밀스는 이 긴장감 가득한 소설에서 최고의 경지를 보여준다” - 「퍼블리셔스 위클리」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어진 러시아 최고지도자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한다. 평생 갖은 위장으로 지켜온 강인한 이미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병들어 약해진 자신을 알보고 권력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없앤다는 계획을 세운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생명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나 사라져도 전혀 개의치 않는 미치광이 독재자, 그를 막기 위해 CIA의 최정예 반테러요원 미치 램이 나선다. 2013년 세상을 떠난 미치 램 시리즈의 원작자, 빈스 플린의 뒤를 이어 카일 밀스가 네 번째로 완성한 이번 신작에서는 NATO 협정을 깨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와의 전쟁도 불사하는 러시아의 폭주를 막기 위한 숨막히는 첩보 작전이 펼쳐진다. 이미 서로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숙적이 목숨을 내던지고 벌이는 치열한 싸움에 권력에 눈멀어버린 자들의 소름 끼치는 반격이 더해지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정치 스릴러 소설이다.

러시아 대통령 막심 크루핀은 반 알몸으로 말에 올라 숲 속을 내달리며 곰 사냥을 즐기는, 야성적인 사냥꾼의 방식으로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려왔다. 자본주의가 러시아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권력을 넘보지 못하도록 철통 경계를 유지하고 국민들에게는 과거의 영광을 재차 상기시키며 국가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시켰다. 그러나 여전히 우락부락하고 거대한 몸집과 달리 크루핀의 속은 병들고 있었다. 잦은 편두통과 수 킬로미터 밖 사냥감도 꿰뚫던 시력이 바로 앞에 있는 물건도 흐릿해 보일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이 변화가 바로 뇌에 생긴 종양에서 시작됐다는 진단이 내려지자, 크루핀은 남은 시간 동안 반드시 해내야 할 일을 고민한다. 지금까지 나온 치료법으로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통보는 그럴지 않아도 인정사정 없는 그의 행보에 채찍질을 한 셈이 되고 말았다. 소시오패스로 불리는 자신보다 더 광기 어린 사이코패스로 불리는 믿음직한 부하, 러시아 국방부장관인 안드레이 소콜로프를 불러들인 크루핀은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된 이상, 겉모습이 어떻든 러시아는 세계 최강국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보여줘야 한다는 그의 조언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를 공격하여 수십 년 전 체결된 NATO 협정을 깨고 전 세계를 이끄는 나라는 러시아 한 곳뿐임을 보여주자는 소콜로프의 극단적인 계획을 승인한다.

러시아의 동태를 주시하던 CIA는 이상한 동태를 감지하고 원인 분석에 착수한다. 무언가가 막심 크루핀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렸고, 그가 지금껏 자행해온 일들과는 차원이 다른 별난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파악한 CIA 국장 아이린 케네디는 마침내 그가 불치병에 걸렸으며, 막다른 골목에 갇힌 이 위험한 권력자가 ‘핵무기를 끌어 안은 병든 어린애’와 다름 없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방법은 단 하나, 그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파멸의 길로 이끌기 전에 은둔지를 찾아내 먼저 목숨을 끊어놓아야 한다. 그 일을 해낼 책임자는 미치 랩밖에 없었다.

과거 크렘린 궁의 최고 암살자였으나 이제는 코스타리카에서 연인과 함께 조용히 살고 있던 그리샤 아자로프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불청객과 마주한다. 러시아 권력에 해가 될 만한 요주의 인물을 리스트로 작성하기 시작한 막심 크루핀은 자신을 등진 아자로프의 이름을 빼먹지 않았고, 그의 뒤를 이어 러시아 최고의 암살자가 된 니키나 푸시킨을 보내 그와 연인의 숨통을 끊어놓으려 한 것이다. 마침 크루핀의 광기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작전을 준비하던 미치 랩은 러시아의 상황과 내부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아자로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찾던 중이었고, 공격이 감행되던 순간 뛰어든다. 미치 랩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으나 연인이 큰 부상을 입자 격분한 아자로프는 크루핀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CIA 작전에 동참하기로 한다.

한편, 끝까지 생존 의지를 놓지 않은 막심 크루핀은 안전성이 확인되지도 않은 뇌 종양 치료법을 자신과 병세가 비슷한 일반인들에게 강제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무자비한 명령도 서슴지 않는다. 그가 병든 사실이 드러나기 전에도 이미 러시아에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크루핀 정권의 무능함을 비난하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를 무력으로 무작정 진압하려는 소콜로프 장관과 크루핀의 조치는 더 큰 분노를 일으킨다. 종양이 뇌에 퍼질수록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판단력도 갈수록 악화되기 시작한 크루핀은 러시아가 세계 전체를 휘두르는 자리에 오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도 동원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 소콜로프의 속삭임에 더욱 의지하고, 안팎으로 점점 무너지는 권력에 절망하며 유럽 대륙을 통째로 날릴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도 불사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른다. 자신을 막기 위해 미치 랩과 아자로프가 나섰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는 가능한 모든 병력을 동원해 이들을 저지하라고 지시한다. 크렘린 궁의 총구가 모조리 자신을 노리는 상황에서, 미치 랩은 미쳐 날뛰는 독재자의 손에서 핵공격 버튼을 빼앗을 수 있을까? 드라마틱한 전개와 액션이 돋보이는 흥미진진한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카일 밀스(Kyle Mills)는 스릴러 작가로 『Rising Phoenix』, 『Fade』, 『The Second Horseman』 등을 발표했다. 2013년에 빈스 플린이 사망한 후, ‘미치 랩’ 시리즈를 이어서 쓰고 있다.

빈스 플린(Vince Flynn, 1966-2013)은 정치 스릴러 소설로 큰 인기를 얻은 소설가로 발표한 모든 소설이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특히 2017년에 영화 <어쌔신: 더 비기닝>으로 제작된 『American Assassin』을 시작으로 이어진 ‘미치 랩(Mitch Rapp)’ 시리즈로 미국 현대소설 중 가장 인기 있는 영웅 캐릭터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NON-FICTION

제목 : PROPAGANDA BLITZ

가제 : 언론, 악마의 가장 위대한 속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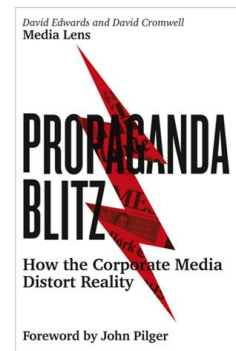
저자 : David Edwards, David Cromwell

출판사: Pluto Press

발행일: 2018년 9월 20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사회과학



* “억만장자 우익 실세들이 소유한 ‘주류 언론’이 독자를 배반하고, ‘진보’ 언론으로 보이는 곳들도 겉으로 보이는 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준다.” - 2011년 마사 겔혼 저널리즘 특별상 수상자, 조너선 쿡(Jonathan Cook)

* “대중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체계적인 방식을 법의학적으로 분석한, 꼭 읽어봐야 할 책” - 『Secret Affairs: Britain's Collusion with Radical Islam』의 저자 마크 커티스

대다수의 사람들은 신문에 실린 기사는 100%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다 ‘사실’이라 믿는다. 최근 온라인에서든, 신문처럼 인쇄된 형태로든 가짜 뉴스가 날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조악한 구성이나 허무맹랑한 내용에서 조작된 뉴스임을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나 보통의 메이저 언론에서 내보내는 기사는 어느 정도 신뢰한다. 특히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언론사는 매년 실시되는 소비자 신뢰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뉴스를 부각시키는 ‘보수 언론’과 대조되는 경우가 많다. 과연 보수 언론보다 진보 언론이 더 정확하고 사실에 가까운 뉴스를 제공할까?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식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까?

함께 언론사를 운영하는 두 저자는 대다수가 신뢰하는 ‘뉴스’가 미디어 기업이 뒤에 서 있는 언론사에서 나온 경우,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대부분 과장되고, 왜곡된 뉴스로 봐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뉴스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있는 그대로 사실만 전달하는 매체로 인식되지만, 미디어 그룹은 어디까지나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일 뿐이며, 다른 사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보도 방향이나 뉴스의 강조점은 돈이 더 잘 벌리는 방향으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방향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다. 두 저자는 영국의 대표적인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를 토대로 정당 정치부터 경제 문제, 기후변화에 관한 논쟁과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진 전쟁의 실태는 물론 행복을 느끼는 인간의 특성과 생존율에 관한 전망에 이르기까지 왜곡되지 않은 뉴스를 찾기 힘들 정도로 뿌리 깊은 주류 언론의 치우친 보도 실태를 이 책에서 폭로한다. 신문사와 방송사를 소유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주체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철저히, 체계적으로 필터링된 뉴스가 단순히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양념을 조금 친’

수준을 벗어나 본질적인 부분부터 얼마나 철저히 왜곡됐는지, 두 저자는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그 근거를 제시한다. 정말 중요한 이슈는 뒤로 감추고 세밀한 계산대로 특정한 이슈를 부각시키는 방식부터 복잡하게 뒤엉킨 이해관계에 따라 실제 일어난 일의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일부에 초점을 맞춰 다른 쪽에 관심이 덜 가도록 만드는 방식까지, 속임수나 다름 없는 교묘한 조작이 주류 언론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된다. 두 저자는 대형 언론사의 이 같은 작전에서 특정 인물이 타깃이 될 경우 영국에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쏠린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이나 코미디언 러셀 브랜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 등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고 신뢰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한다. 스코틀랜드 독립 찬반투표와 영국 국민건강보험 해체에 관한 찬반 대립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실제로 벌어진 이 같은 왜곡된 보도 내용을 토대로 객관주의 저널리즘의 의미와 가짜 뉴스에 관한 가짜 뉴스의 실태를 새로운 시각으로 날카롭게 분석한 책이다.

<목차>

서문 - 저널리스트 존 필거(John Pilger) / 머리말: 악마의 가장 위대한 속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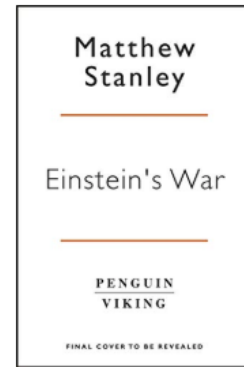
1. 선전 공세를 해부하다
2. 코빈 죽이기
3. 어산지, 브랜드, 차베스 더럽히기
4.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다'
5. 리비아: '이 모든 문제는 석유에서 비롯됐다'
6. 시리아: 전쟁을 부추기는 즉각적 확산
7. 예멘: 기근을 이용하다
8. 선전 기계 BBC
9. 국민건강보험 해체 전략
10. 스코틀랜드 독립: 한 쪽으로 치우친 '놀라울 정도로 장황한' 설명
11. 기후 문제: 불편한 긴급상황
12. '가짜 뉴스'와 객관주의 저널리즘, 상업적 모형은 제외해야 하는 이유

<저자 소개>

데이빗 에드워즈(David Edwards)는 미디어 렌즈(Media Lens)의 공동 창립자 겸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The Compassionate Revolution』 (1998), 데이빗 크롬웰과 공동 저술한 『Guardians of Power』 (2006), 『Newspeak in the 21st Century』 (2009)가 있다.

데이빗 크롬웰(David Cromwell)은 데이빗 에드워즈와 함께 미디어 렌즈(Media Lens)의 공동 창립자 겸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Private Planet』 (2001), 『Why Are We The Good Guys?』 (2012)가 있다.

제목 : EINSTEIN'S WAR
가제 : 아인슈타인의 전쟁
저자 : Matthew Stanley
출판사: Viking
발행일: 2019년 5월 30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과학/역사



*** 적국의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획기적인 이론을 편견 없이 받아들인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 -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낸 상대성 이론과 이후 전 세계에 펼쳐진 놀라운 변화**

과학자들의 위인전집을 펼쳐보면, 남다른 지성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꿔놓은 발명품, 혹은 이론을 ‘단번에’ 떠올린 것만 같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 하릴없이 누워 있는 모습이나, 욕조에 누워 있다가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처럼 가만히 있다가도 발상이 떠오른 것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과학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며 실제로는 그저 머리가 비상하거나 운이 좋아서 단번에 큰 성과가 나온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동시에 떠오르는 ‘상대성 이론’ 역시 마찬가지다. 세세한 내용은 몰라도 이론의 명칭 정도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 이론은 1차대전이 유럽을 집어삼킨 1910년대 말, 아인슈타인의 끈질긴 탐구와 노력 끝에 탄생했다. 지금은 천재라는 수식어가 당연한 듯이 붙는 아인슈타인은 겨우 완성한 이론을 입증하지 못해 당시 동료들조차 납득시키지 못하고 속앓이만 해야 했다.

자칫 외면당할 뻔했던 그의 놀라운 이론에 생명을 불어넣은 사람은 바다 건너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이었다. 과학자이자 역사가인 저자는 과학계는 물론 우주에 관한 인식 자체를 뿌리부터 바꿔놓은 상대성 이론이 하루 아침에 똑딱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두 과학자가 정치적인 대립을 너머 오직 순수한 탐구심 하나로 피땀 흘려 일궈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 책에서 소개한다. 아서 에딩턴이 영국의 적이던 독일 과학자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 아프리카 인근 프린시페 섬으로 직접 떠나 마침내 전 세계에 ‘빛도 질량이 있다’는 아인슈타인 이론의 핵심 근거를 직접 사진으로 촬영한지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 출간될 이 책에는 한 천재 과학자가 세계적인 명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또 다른 위대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아서 에딩턴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처음 접한 때는 1916년으로, 중립국이던 네덜란드의 동료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였다. 전쟁으로 독일과 영국은 편지를 비롯한 모든 연락이 끊긴 상황이었고, 독일에서 짧게라도 공부한 적이 있는 학자들은 죄다 수상한 낌새가 없는지 감시까지 받았다. 국가적인 통제가 아니더라도 애국심이 뜨거웠던 과학자들은 적국의 동료 학자들이 아무리 훌륭한 결과를 내놓아도 콧방귀를 뀌거나 폄하하고 무시했다. 이런 점에서

평화주의자이자 전쟁이라면 질색하던 아서 에딩턴의 손에 그 편지가 들어온 것은 아인슈타인에게 특별한 행운이 따랐다고 할 수 있다. 천문학자였던 에딩턴은 편지지에 깔끔하게 적힌 어느 독일인 물리학자의 난해한 공식이 과학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열쇠임을 알아보았다. 전쟁으로 허물어진 국제 과학의 네트워크를 되살릴 절호의 기회라 판단한 에딩턴은 독일인 학자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로 절대 묻혀서는 안 되는 이 이론의 위대함을 직접 증명하기로 결심하고, 개기일식 때만 관측할 수 있는 빛의 휘어짐 현상을 관측하기 위한 탐사를 준비한다. 건강은 악화되고 누구도 자신이 발견한 결과를 믿어주지 않아 스러져가던 아인슈타인의 운명은 정작 본인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이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저자는 두 사람이 실제로 만난 시점부터 2년도 더 전에 이루어진 에딩턴의 탐사와, 전쟁을 뚫고 과학적인 성과를 알리기 위해 그가 펼친 노력을 상세히 소개한다. 나아가 과학적인 발견은 걸출한 천재에게 섬광처럼 찾아온 결과라기보다 이처럼 여러 사람의 고된 노력과 도박이나 다름 없는 과감한 도전, 숀한 실패 속에 피어난 결실임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과학 하나로 하나가 된 두 사람의 열정과 물리학은 범접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관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역사적 사건들과 함께 접할 수 있는 흥미로운 과학 역사서다.

<목차>

머리말. 과학계의 아이콘

1장. 전쟁 이전의 과학

2장. 전쟁의 발발

3장. 평화를 위한 동원

4장. 국제 과학의 붕괴

5장. 가장 중대한 승리

6장. 친구와 동맹

7장. 우주의 경계

8장. 상대성이론을 향한 반대의 목소리

9장. 혁명의 초입에서

10장. 테스트

11장. 상대성의 서커스

맺음말. 아인슈타인과 에딩턴이 남긴 것

<저자 소개>

매튜 스탠리(Matthew Stanley)는 역사, 천문학, 물리학, 종교학을 공부하고 현재 뉴욕 대학교 과학사 교수로 재직 중이다. 「Physics Today」, 「Physics World」, 「Los Angeles Review of Books」에 글을 기고해 왔으며 히스토리 채널, BBC, NPR에 출연했다.

제목 : WORK WIFE

가제 : 사업 성공을 이끄는 여자들의 우정

저자 : Erica Cerulo, Claire Mazur

출판사: Ballantine Books

발행일: 2019년 3월 5일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비즈니스



*** 가장 친한 친구가 최상의 동업자, 사업 파트너가 되는 비결을 소개한 새로운 경영 지침서**

불과 몇 달 뒤도 예측하기 힘든 변화무쌍한 시대에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유능한 사업수완을 보유하고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업체들이 많다. 누구나 인생 어느 시점에 겪는 힘든 고비에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서 큰 힘을 얻듯이 비즈니스에도 그런 존재가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 세세하게 신경 쓸 일이 많을 때, 혼자 결정하기에는 부담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 때 함께 일하는 동료나 구성원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사업 파트너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라면 얼마나 좋을까? 대학에서 선후배로 만나 베스트프렌드가 되고 10년 넘게 최고의 사업 파트너가 된 두 저자는 그런 생각이 얼마든지 실현 가능하며 더욱 활발히 실현되어야 할 이상적인 사업 방식이라고 이야기한다.

2010년에 패션과 디자인 제품을 판매하는 웹 사이트 ‘오브 어 카인드(Of A Kind)’를 처음 만들고 현재까지 꾸준히 사업을 확장하며 성공적으로 키워온 두 사람은 남성 위주의 조직 문화와 운영 방식을 뒤엎고 여성 특유의 섬세하고 친근한 접근 방식으로 사업도, 일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대하며 독자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일궈냈다. 성공의 가장 큰 비결은 두 사람의 우정과 신뢰라고 주저 없이 이야기하는 두 저자는 친구로 만난 여성들이 둘, 셋씩 모여 불경기 속에서도 잘 나가는 사업체를 꾸려가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라 말한다. 여자들의 우정은 서로 시기하고 등에 칼을 꽂는 알고 일시적인 감정이라 비웃는 일부 사람들의 편견과 달리 특별한 끈끈함이 존재하며, 이것이 사업적으로 확장될 때 얼마나 놀라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소개한다.

시카고 대학교에서 처음 알게 된 두 사람은 그 시절 모두의 최대 관심사였던 연애 상담을 해주다가 절친한 친구가 되었다. 졸업 후 각자의 커리어를 위해 함께 뉴욕으로 옮긴 후에도 우정은 이어졌고, 개인적인 일과 더불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에 대한 대화도 모두 털어놓고 의논하던 중 비슷한 아이디어를 키워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늘 새로운 상품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취향에 맞지도 않으면서 유행을 따르거나 어떤 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무작정 소비하는 것은, 정말 가치 있는 상품이 외면 당하게 되고, 소비자도 아무 의미 없이 돈 쓰는 행위 자체에만 집중하게 된다는 점에서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두 사람의 공통적인 생각이었다. 이 생각은 신진 디자이너와 잘 알려지지 않은 상업 예술가들을 찾아 이들이 하나하나 정성을 쏟아서 만든 상품을 제작 과정과 만든 사람의 생각과 함께 소개하는

웹 사이트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로 이어졌고, 몇 달간의 고민과 회의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어느 한 쪽을 누르고 위에 오르고 말겠다는 권력 다툼이 없는 관계, 사업은 망해도 돌이 한 가지 목표로 달려봤다는 보람과 그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우정은 남는다는 확신, 면전에서 깔아뭉개려는 투자자들이 던진 가시 돋친 말에 함께 울고 욕할 상대가 있다는 든든함은 여자들의 우정이 사업의 바탕이 될 때 얼마나 유리한 자산이 되는지 체감했다는 두 저자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두 사람의 사업 이야기와 함께 금융계, 스포츠 분야, 식음료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들처럼 우정을 동력으로 비즈니스를 키운 여성들의 인상적인 사례를 이 책에서 소개한다. 사업 파트너가 되어 잠자는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을 함께 하고 돈 이야기, 채용과 해고 이야기부터 컨디션 관리나 사적인 상황까지 전부 다 공유하다 보면 끈끈한 사이가 될 법도 한데, 오히려 더 끈끈해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보통 여성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일과 가정 양쪽에 치여 스트레스가 가중되기 십상인데, 여성이 비즈니스 파트너로 사업체를 이끌면 그런 변화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저자는 훨씬 더 생산적이고 진보적으로, 불필요한 마찰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혁신과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성들의 공동 비즈니스가 가진 독특한 이점과 성과를 보여주고 여전히 설 곳이 부족한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한다.

<목차>

아내 찾기
파트너십의 형성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다
일과 관계의 균형 찾기
상사가 되는 것
돈 관리
경제 상황이 나빠도 살아남기
출산(그 와중에 사업은 해야 할 때)
여성 가장으로 사는 법

<저자 소개>

에리카 세룰로(Erica Cerulo)와 클레어 마주(Claire Mazur)는 2010년 패션, 디자인 웹사이트 'Of a Kind'를 공동 설립하고 운영 중이다. 두 사람이 공동 제작한 뉴스레터 "10 Things"와 팟캐스트 "A Few Things"를 통해서도 신제품과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다. 두 사람은 「포브스」로부터 '30세 이하 주요인물 30인'에 선정됐으며 'Of a Kind'는 「인스타일」 선정 '최우수 웹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

제목: UNEXPLAINED

가제: 설명할 수 없는 일들

저자: Richard Maclean Smith

출판사: Sceptre

발행일: 2018년 10월 25일

분량: 352 페이지

장르: 에세이



★ 북셀러 선정 ‘에디터스 초이스’

★ 영국과 미국 팟캐스트 인기순위 2위, 누적 청취횟수 1200만회를 돌파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 동명의 팟캐스트를 토대로 완성된 책 / TV 다큐멘터리로도 제작 중

과학이 발달하고 과거에는 그저 ‘신기한 일’로 여겨지던 현상도 원리나 특성이 모두 밝혀진 후에도 우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을 빼앗긴다. 한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UFO, 꿈에 아는 사람이 나타나 전한 메시지를 속는 셈 치고 따랐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꿈쩍없이 죽겠구나, 생각한 순간에 난데없이 끌어당긴 어떤 힘에 기적처럼 위기를 모면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증거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심 믿고, 신기하다고 느낀다.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이런 미스터리한 현상을 조사하고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자들과 공유해온 저자는 누적 청취 횟수가 1200만 회를 넘을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초자연적 사건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열 가지를 모아 이 책에서 들려준다. ‘소름 끼치는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팟캐스트라고 한 「파이낸셜 타임스」의 감상이나 ‘세계에서 가장 으스스한 팟캐스트’라는 「가디언」의 평가대로, 어떤 방식으로든 설명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임에 분명하지만 분명히 일어났고, 목격자가 있었던 기이한 현상들과 만날 수 있다.

1980년 12월 영국 서퍽 주 렌들스햄 숲에 나타난 이상한 불빛에 관한 이야기도 이 책에 소개된다. 특히 렌들스햄 숲의 불빛은 그 형태가 비행물체와 너무나 흡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UFO로 믿고 있다. 또한, 영화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의 실제 이야기도 이 책에 담긴 열 가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포함된다. 10대 후반부터 잦은 발작에 시달리다 간질과 정신병 판정을 받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독일의 젊은 여성, 애나 엘리자베스의 이야기다.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물건을 보면 소스라치게 놀라고, 이상한 환청을 듣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이어지자 가족은 귀신에 빙의됐다고 판단하고, 가톨릭 사제에게 정식으로 구마 의식을 요청한다. 이와 함께, 영국 미들스브러에서 세 살 때부터 자신은 2차 대전에 공군으로 참전했던 독일인 비행사였고 환생한 것이라 주장한 청년의 이야기도 담겨 있다. 칼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철도 정비사로 일하다 살해당했는데, 그가 죽은 뒤 역사학자들이 발굴한 자료에서 칼이 생전에 구체적으로 묘사했던 전생의 전투기 폭격 사건이 실제로 벌어진 일로 드러났다. 게다가 실제 사건으로 사망한 독일인 공군 병사의 사진은, 죽은 칼과 가족도 경악할 만큼 닮은 모습

이었다.

저자는 무신론자이고 철저한 이성주의자로서 어린 시절부터 이와 같은 현상에 깊은 매력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신이 다 뜻이 있어서 한 일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없고 과학자는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무턱대고 믿을 수도 없지만 분명히 일어난 사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다. 인간의 근본적인 믿음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무엇이든 합리적인 이유를 찾으려는 본질적 욕구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건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무시하는 대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은 어떤 이유에서든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색다른 의미의 불확실성과 직면할 수 있는 으스스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과 만나는 독특한 경험이 될 만한 책이다.

<목차>

머리말

1장. 꿈의 부활

2장. 상자

3장. 숲 너머, 어둠 속에서

4장. 내 속에서 나를 보다

5장. 아침의 이름

6장. 우리가 본 그 모든 것

7장. 이 벽들이 소리 지를 수 있다면

8장. 어둠의 땅으로

9장. 상식적인 공포

10장. 모든 이야기는 귀신 이야기다

<저자 소개>

리처드 맥린 스미스(Richard MacLean Smith)는 세 번째 시즌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기 팟캐스트 ‘Unexplained’를 제작해 왔다.

제목 : POWER TALK

가제 : 리더와의 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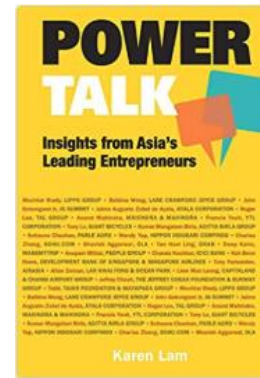
저자 : Karen Lam

출판사: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Pte Ltd.

발행일: 2018년 7월 30일

분량 : 244 페이지

장르 : 경영/리더십



*** “아시아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제각기 다른 경로와 방식으로 성공에 이르렀지만, 삶과 가족, 가치에 관한 생각에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집어낸 책” – Mediacorp Pte Ltd의 고객관리책임자 데브라 순(Debra Soon)**

아시아 전문가이자 역사학자인 마이클 오슬린(Michael Auslin)은 2017년에 나온 저서에서 ‘아시아의 세기(the Asia Century)’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서구 사회가 지난 30 년간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신흥 시장으로 평가한 아시아 산업계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관심을 묘사한 이 표현대로, 전 세계가 중국, 싱가포르, 대만, 한국, 홍콩 등 이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국가들을 비롯해 그 뒤를 잇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난과 열악한 인프라, 부족한 기술, 깨기 힘든 전통적 사고 등 산업적 측면에서는 불리한 요소가 산적하다고 여겨진 아시아가 그리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비결은 무엇일까? 현재와 같이 상승세를 타기 전,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해야 하던 시절에 처음으로 성공의 싹을 틔운 기업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험난한 길을 개척할 수 있었을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화가 방송된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 방송사의 ‘파워 리스트 아시아’ 시리즈에서는 바로 이 의문을 풀기 위해 아시아에서 가장 인상적인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실시했다. 여섯 시즌까지 이어진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맡아 직접 이 놀라운 기업가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표면적인 질문을 넘어 이들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는 과감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던 저자는 그 특별한 만남에서 얻은 통찰을 이 책에 정리했다. 아시아 전체의 성공 가능성을 누구보다 선명하게 입증해 보인 기업가들은 어떤 마인드로 사업을 대하는지, 개인적인 삶의 철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아시아에서 리더로, 사업가로 살아가면서 유지해 온 태도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주된 동력은 무엇인지에 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에는 종사하는 업종이나 세대를 너머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통적인 성공의 열쇠가 담겨 있다.

아시아가 산업 불모지였던 시기에는 이미 성공한 서구 사회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단순히 가져다 쓰거나 모방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그 단계에 만족하지 않고 남다른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은 불안정한 자국의 정치적 상황과 서양과는 판이하게 다른 문화적 기준, 전통적 인식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틈을 찾아냈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이는 바로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만

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찾아낼 수 있는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열쇠이고, 단순히 사업적 아이디어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는 절대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그 균형을 제대로 찾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하고 성공한 사례보다 실패한 사례가 훨씬 더 많다. 아주 소박하게 시작한 사업을 성장시키고, 갖가지 논란과 장벽을 딛고 확장에 성공한 기업은 기업가의 포기라곤 모르는 불굴의 의지가 바탕이 된 경우도 있지만 기적이나 다름없는 운이 따라준 경우도 있었다. 저자는 직접 전해들은 이 과정은 어느 영화나 소설보다 훨씬 짜릿한 긴장감이 가득하고 극적이라고 설명한다. 2차 대전으로 산산조각 난 땅에서 거대한 제국을 일군 1세대 기업가들의 투지와 날카로운 지혜, 뿌리 깊은 전통적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소통과 투명성을 내세워 새로운 리더십의 표본을 만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공신화를 정리한 경영 지침서다.

<목차>

서문 / 머리말

1부. 개척자들

1장. 네트워크 구축의 명인, 목타 리아디 (리포 그룹, 인도네시아)

2장. 중국 사치품 시장을 이끄는 노부인, 발비나 웡 (레인 크로포드 조이스 그룹, 홍콩)

3장. 썩고 먹고 알도 먹은 사람, 존 고콩웨이 주니어 (JG 서밋, 필리핀)

2부. 계승

4장. 일곱 세대째 대를 이은 기업, 제이미 아우구스토 조벨 데아알 (아알라 코포레이션, 필리핀)

5장. 책임자, 로저 리 (TAL 그룹, 홍콩)

6장. 볼리우드일까, 비즈니스일까? 아난드 마히드라 (마히드라 앤 마히드라, 인도)

3부. 서구로 향한 동방 국가들

7장. 모국에서 받아주지 않은 예언자, 프란시스 예 (YTL 코포레이션, 말레이시아)

8장. 최고와 보조를 맞추 줄 아는 사람, 토니 로 (자이언트 바이시클, 대만)

9장. 세계를 휘어잡은 패기, 쿠마르 망갈람 비를라 (아디티 비를라 그룹, 인도)

4부. 지역 브랜드의 성장 (10-11장)

5부. 기술로 성공한 사람들 (12-15장)

6부. 위기관리 (16-1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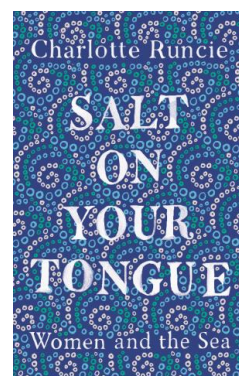
7부. 소통의 달인 (18-20장)

8부. 자선사업가 (21-22장)

<저자 소개>

카렌 램(Karen Lam)은 방송사 기자로 사회에 첫 발을 들이고 언론인, 비즈니스 컨설턴트로 20년 이상 활동해 왔다. 2012년부터는 싱가포르 방송사인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에서 ‘파워 리스트 아시아(Power List Asia)’ 시리즈를 이끄는 진행자로 활약했다.

제목 : SALT ON YOUR TONGUE
가제 : 혀 끝에 감도는 바다 내음
저자 : Charlotte Runcie
출판사: Canongate Books
발행일: 2019년 1월 3일
분량 : 384 페이지
장르 : 에세이



★ 스페인, 독일 판매 완료(pre-empt)

★ 바다에 끊임없이 매혹된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스신화, 설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바다 이야기를
몽환적이고 시적인 글로 묘사한 독특한 에세이

벧사람들이 항해 도중에 부르던 노래를 여성이 부르면 어떤 느낌일까? 그런 노래가 한창 만들어지던 시대에 여성은 꺾꼬리처럼 고운 목소리로 예쁘게 노래하는 것이 정상으로 여겨졌기에, 럽주를 들이키며 이미 거나하게 취한 음성으로 고향치듯 불러야 맛깔나는 벧사람의 노래를 여자가수가 부르면 어색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여자는 배에 오르면 안 되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배 이름은 꼭 여성의 이름으로 짓고, 영어에서 배를 가리키는 대명사는 ‘she’로 고착된 모순된 문화, 저자는 바닷가 어느 펍에서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벧사람의 노래를 들으며 이런 생각에 빠진다. 바다는 어릴 때부터 저자의 모든 생각과 글에 빠짐없이 영향을 주었다. 섬나라인 영국에서 태어나서일까, 어릴 적 바닷가에 있던 할머니 집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서일까, 모든 일에 바다가 끼어드는 것이 스스로도 의아해서 그 이유를 찾으려 고민했던 적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저자는 자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바다에 깊은 매혹을 느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리스 신화에도, 세계 각국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든 바다 속에서, 혹은 바다 근처에서 불행과 행운을 겪은 사람들의 아름답고 때로는 기이한 사연이 무궁무진하고 저자가 가슴 깊이 묻은 그리운 할머니도 평생을 바다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진정되고 차분해지는 바다, 하지만 눈에 보이기 전에 짠 소금기가 냄새로 먼저 느껴지는 강렬한 야생성이 활력과 영감을 일깨워주기도 하는 바다의 이묘한 매력을 다양한 시각으로 파헤친 이 책에서, 저자는 할머니를 잃고 벧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리잡은 뒤 더 강한 끌림을 느낀 바다와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인간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일까?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여성들에게 바다는 어떤 의미였고,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사랑하는 이를 거친 파도에 잃은 여성들, 언제 자신을 집어삼킬지 모르는 바다로 가족을 위해 나아간 용감한 선원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 그리고 바다 깊숙이 몸을 숨기고 사는 신비한 생명들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 그리고 제각기 다른 사연을 안고 해변을 거니는

사람들과 그저 물이 좋아서 수영에 심취한 사람들, 그들 주변을 맴도는 다양한 새들, 정말로 존재하는지 그 누구도 확신하지 못하는 인어의 이야기까지, 저자는 꿈처럼 이어지는 유려한 문장으로 저자 자신이, 그리고 역사와 문학 작품 속의 수많은 인물들이 바다에 매혹되고, 두려움을 느끼고, 인생을 통째로 바꾼 큰 영감을 얻은 이야기들을 풀어 놓는다. 누구나 뛰어 들 수는 있지만 그 누구도 마음대로 통제하거나 뜻대로 하지 못하는 바다와 그 바다에 흘린 듯 빠져드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랑과 탄생, 죽음, 음악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각 장의 제목을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성들 중에서도 삶이 바다로 인해 크게 뒤바뀐 여성들의 이름으로 정하고 저자의 개인적인 이야기와 노래 가사, 시 등을 넘나들면서도 전혀 혼란스럽지 않게 이어지는 글이 바다만큼이나 매력적인 특별한 에세이다.

<목차>

1. 알키오네
2. 타이게테
3. 켈라에노
4. 마이아
5. 메로페
6. 엘렉트레
7. 아스테로페
8. 아틀라스와 플레이오네

<저자 소개>

샬럿 런시(Charlotte Runcie)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에서 시 비평가, 칼럼니스트, 예술 분야 저술가로 활동 중이다.